

반쪽행사·왜곡 아픔에도 광주는 뜨거웠다

■ 5·18 33주년 전야제·기념식 이모저모

서울·부산·속초서도 기념행사 빅뱅 태양 “잊어서는 안 될 역사”

지난 18일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아쉬움과 논란 속에 거행됐다.

5월 관련단체·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을 제 각각 치렀지만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정신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석가탄신일부터 5·18 기념식이 어지는 황금 연휴에 광주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19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5·18 기념식이 열린 18일 전국에서 8만여명이 국립 묘지를 찾는 등 16~18일 16만5000여명의 참배객들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묘지 관리사무소는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 17일 국립묘지를 24시간 개방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부터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 '33주년 기념 전야제'에는 4000여명의 군중이 참가해 5월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상용자동차, 강경마을, 용산 재개발 사업 등의 영상에 이어 광주 시립국극단과 이예주 서울대 교수의 섯갓이 선보이며 폭력과 억압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안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부산에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정숙(25·경성대 행정학과)씨는

“부산에서 광주까지 8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일 전날인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연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진행됐고 부산·대전·속초 등에서도 사진전, 영화제 등 다양한 방식의 5·18 기념 행사가 거행됐다.

○-5·18 민주항쟁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 그룹 등 인기 연예인들도 10~20대 젊은층들에게 5·18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영화 '26년'에 출연한 그룹 2AM의 영송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5·

18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고 조권은 "폭동이 아닙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룹 빅뱅의 태양은 트위터에 "오늘은 제 생일 이기도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18일 유재석 등 출연진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지난 2011년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5·18 알리기

에 동참했다.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에 반발해 5·18 33주년 기념식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유족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의했다.

유족들은 기념식장 구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구호를 외쳤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일부 유족들은 기념식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을 붙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18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 묘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에선 클

라리대 연주가 울려 퍼졌다.

장성규(32·시각장애 1급·미국 텍사스 주립대)씨는 이날 5·18 구 묘역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클리퍼넷으로 연주해 참배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장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인 광주를 찾았다. 내년부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울려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양재열기자 hot@kwangju.co.kr



학업문제 아들과 말싸움 30대 엄마 숨진 채 발견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여·38)씨가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아들(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발견했다.

A씨는 최근 아들과 진로 문제로 인해 잦은 말싸움을 벌였고, 이 날 새벽에도 아들과 취업과 학업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격분해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철기자 srchoi@

영광 전기차 사업 '멈추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AD모터스·토자이홀딩스 압수수색

주가조작 거액 부당이익

검찰이 전기차 생산업체인 AD모터스와 투자 및 M&A 컨설팅 업체인 토자이홀딩스를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영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

권선물위원회(증권위)는 지난해 5월 AD모터스 유영선 대표이사과 토자이홀딩스 하중진 회장을 시세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토자이홀딩스의 비상근 감사원 유 대표가 겸직하는 등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하 회장과 유 대표를 하 회장의 고등학 교 동창 A씨에게 두 회사의 시세조작을 의뢰해 총 1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회장은 또 자신의 토자이홀딩스

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차명계좌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대표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하 회장으로부터 전해듣고 AD모터스가 보유한 토자이홀딩스 주식 380여 만주를 팔아 21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자이홀딩스는 2011년 9월 상장폐지됐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전기차 테마주로 뜨며 주가가 급등했던

AD모터스도 전기차 체인이자 흥행에 실패하면서 실적이 악화한데다 회계부정까지 적발되면서 지난 1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두 업체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영광경찰은 지난달 17일 대마산단단지 내 전기자동차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투자자를 꼬여 수백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A사의 자회사 임을 사칭한 B회사 간부인 정모(5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일반 투자자 192명에게 2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육군 소령인 친구 아버지가 성폭행”

여대생측 신고... 전남경찰 수사 나서

육군 소령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전남 한 모텔에서 육군 소령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생 B(여·20)씨 측의 신고가 최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B씨는 친구 아버지인 A씨와 우담을 먹다가 “옷에 증독되지 않으려면 먹어야 한다”면서 A씨가 건넨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력 상담센터와 함께 B씨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사 내용을 군 헌병대에 넘길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육군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손님이 '러브샷' 히터더니 강제 키스

○- 손님이 '러브샷'을 요청했다가 그대없이 입을 맞췄다는 40대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 착수.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47)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이 50(50)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강제 키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경찰에서 A씨는 “2차레 정도 본 손님이 러브샷을 요청해 응수한 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조만간 이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긴급 입찰 공고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친환경 비 건조 저온 저장 시설의 기계설비 공사(토목포함)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제한경쟁 입찰을 공고 합니다

아 래

구 분	현장설명 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 및 개찰 일시
일 시	2013년 5월 23일10시	2013년 5월 28일13시	2013년 5월 28일13시
장 소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친환경 비 건조 저온 저장 시설의 건축 공사
입찰주요사항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
공 사 현 장	제1현장 전남 국성군 오산면 연회리 1015-1
제2현장 전남 국성군 임면 창정리 291-2	
공 사 기 간	계약일부 90일 이내
공 사 개 요	제1현장 비 건조 저온 저장시설의 건축 및 토목공사 제2현장 비 건조 저온 저장시설의 양곡 보관고(100평 1동) 및 건축(토목공사 포함) 공사
공 사 내 용	건축공사(토목공사 포함)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구 분	현장설명 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 및 개찰 일시
일 시	2013년 5월 23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장 소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3. 입찰 참가 자격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를 등록한 업체
- 주된 사무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5년(2008년~2012년)동안 비 건조 저장시설의 건축공사 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농협의 계약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로 입찰 참가 등록 시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농협의 계약규정 준용)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법인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낙찰자의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후 결정하며 그 기일은 2013년 5월 29일 까지 개별 통보하고 본 법인의 주 사무소에 공고합니다

6. 계약의 이행 예정 기간

- 계약 기간 : 낙찰 확정 일로부터 5일 이내
-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청렴계약체 대상 계약임.

7. 입찰 무효 : 공사 입찰 유의서 및 농협의 계약 규정에 의한.

8. 기타

-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적격심사제부기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 설계도 열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 청렴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 입찰을 실시하며 전자입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관하여 제출된 제반 서류는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관한 중요 서류는 본 법인에 비치하고 있으니 2013년 5월 27일 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사무소 061-362-1009(옥과농협 겸면지점)

2013년 5월 20일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긴급 입찰 공고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친환경 비 건조 저온 저장 시설의 기계설비 공사(토목포함)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제한경쟁 입찰을 공고 합니다

아 래

구 분	현장설명 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 및 개찰 일시
일 시	2013년 5월 23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장 소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친환경 비 건조 저온 저장 시설의 기계설비 공사
입찰주요사항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
공 사 현 장	제1현장 전남 국성군 오산면 연회리 1015-1
제2현장 전남 국성군 임면 창정리 291-2	
공 사 기 간	계약일부 90일 이내
공 사 개 요	제1현장 비 건조저온저장시설(싸일로400톤 4기/투입구2개)
제2현장 비 건조저온저장시설(싸일로400톤3기/투입구1개)	
공 사 내 용	기계설비공사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구 분	현장설명 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 및 개찰 일시
일 시	2013년 5월 23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2013년 5월 28일10시
장 소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옥과농협 2층 회의실

3. 입찰 참가 자격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를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농협중앙회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확인서류 제출)
-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제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농협의 계약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로 입찰 참가 등록 시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농협의 계약규정 준용)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법인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낙찰자의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후 결정하며 그 기일은 2013년 5월 29일 까지 개별 통보하고 본 법인의 주 사무소에 공고합니다

6. 계약의 이행 예정 기간

- 계약 기간 : 낙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청렴계약체 대상 계약임.

7. 입찰 무효 : 공사 입찰 유의서 및 농협의 계약 규정에 의한.

8. 기타

-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적격심사제부기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적격심사 기준), 설계도 열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 청렴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 입찰을 실시하며 전자입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관하여 제출된 제반 서류는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관한 중요 서류는 본 법인에 비치하고 있으니 2013년5월27일 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사무소 061-362-1009(옥과농협 겸면지점)

2013년 5월 20일

국성군 옥당골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